

Daniel: 32

Title: “Gabriel interprets the vision”

Scripture: Daniel 8:15-27

Date preached: January 26th 2025

Scripture: Daniel 8:15-27

15 Then it happened, when I, Daniel, had seen the vision and was seeking the meaning, that suddenly there stood before me one having the appearance of a man. 16 And I heard a man’s voice between *the banks of the Ulai*, who called, and said, “Gabriel, make this *man* understand the vision.” 17 So he came near where I stood, and when he came I was afraid and fell on my face; but he said to me, “Understand, son of man, that the vision *refers* to the time of the end.”

18 Now, as he was speaking with me, I was in a deep sleep with my face to the ground; but he touched me, and stood me upright. 19 And he said, “Look, I am making known to you what shall happen in the latter time of the indignation; for at the appointed time the end *shall be*. 20 The ram which you saw, having the two horns—*they are* the kings of Media and Persia. 21 And the male goat *is* the kingdom of Greece. The large horn that *is* between its eyes *is* the first king. 22 As for the broken *horn* and the four that stood up in its place, four kingdoms shall arise out of that nation, but not with its power.

23 “And in the latter time of their kingdom,
When the transgressors have reached their fullness,
A king shall arise, Having fierce features,
Who understands sinister schemes.

24 His power shall be mighty, but not by his own power;
He shall destroy fearfully, And shall prosper and thrive;
He shall destroy the mighty, and *also* the holy people.

25 “Through his cunning He shall cause deceit to prosper under his rule;
And he shall exalt *himself* in his heart.
He shall destroy many in *their* prosperity.
He shall even rise against the Prince of princes;
But he shall be broken without *human* means.

26 “And the vision of the evenings and mornings
Which was told is true; Therefore seal up the vision,
For *it refers* to many days *in the future*.”

27 And I, Daniel, fainted and was sick for days; afterward I arose and went about the king’s business. I was astonished by the vision, but no one understood it.

15 □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일려고 할 때 갑자기 □ 같은 형체가 □ 앞에 □ □ □ □ . 16 그때 □ □ 을
레 강변에서 “가브리엘아, 그 환상의 뜻을 이 □ □ □ □ 말해 주어야”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 17 그가 가까이와
서 □ 앞에 섰을 때 □ □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가 □ □ □ □ “□ □ □ □ 아들이, 그 뜻을 깨
달아 일하라. 이 환상은 세상의 종말에 관한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18 그가 나에게 말하는 동안 나는 의식을 잃은 채 땅에 엎드려 있었으나 그가 나를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우고 19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진노하실 때 일어날 일을 나에게 일러 주겠다. 이 환상은 역사의 마지막 사
건에 관한 것이다. 20 “네가 본 그 숫양의 두 뿔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고 21 뿔이 많은 그 숫양소는 그리
스를 가리키며 그 숫양소의 두 눈 사이에 난 큰 뿔은 그 나라의 첫 번째 왕이다. 22 그 뿔이 꺾이고 대신 나온 네 뿔
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네 나라를 가리킨다. 그 어느 것도 처음 나라보다 강하지 못할 것이다.

23 그 네 나라가 멸망할 때쯤 되어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것이며 그때 아주 압제하고 책무에 능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24 그는 대단히 강력할 것이지만 그 권세는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가 장차 무자비하게 파

Isn't Daniel's reaction to the presence of the angel interesting. I mean angels resemble chubby little babies don't they. What's to be afraid of? Sorry to shatter your illusion if this is what you believe. The bible commonly presents angelic beings as being strange, and frequently fearsome. They often illicit awe and terror from the human beings they encounter. When an angel appeared to the guards at Jesus's tomb on resurrection Sunday they shook with fear (Matt 28:6). Zacharias we are told was troubled and fear fell upon him when he was visited by the angel Gabriel (Luke 1:12)

So actually Daniel's reaction is quite typical for someone encountering a messenger of God. His first instinct is to fall on his face thus adopting a position of submission and respect.

Gabriel refers to Daniel here as, "son of man." I spoke a couple of weeks ago about the two ways this expression is used in scripture. When it is capitalised in our English bibles it refers to the Lord Jesus Christ. It was a term He often used of Himself (Matt 12:32, Luke 12:8, John 1:51). It emphasises his pre-eminence as the ultimate manifestation of man. It is underscoring for us that Jesus is the supreme example of all that God intended mankind to be, the embodiment of truth and grace. When it is not capitalised as for example here, and in Ezekiel (Ezekiel 2:1) it is simply reinforcing the fact that the person in view is a "human being." It reminds the hearer, in this case Daniel of his human weaknesses. He will not be able to understand the dream or vision without a supernatural explanation.

Gabriel goes on to tell him that the vision refers to the **time of the end**. The question we must ask of course is what end is in view here? Does Gabriel mean the end of the time of tyranny brought against the Jewish people by Antiochus Epiphanies (175-164 BC)? He was indeed an antichrist whose actions mirror what we read about here in this second vision. Or does Gabriel have THE end times in mind right before Christ's return in glory? The most satisfactory answer is that both "end times" (a dual fulfilment) are probably in view. This prophecy was fulfilled in Antiochus Epiphanies, but also has a later fulfilment in the Antichrist. Both of these events were far off in the future as far as Daniel was concerned.

Let us read on.

17 그가 가까이 와서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그 뜻을 깨달아 일하라. 이 환상은 세상의 종말에 관한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천사의 존재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이 흥미롭지 않나요? 천사는 얼굴이 포동포동한 작은 아기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뭐가 두렵죠?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면 그 환상을 깨뜨려서 죄송합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천사를 기이하고 두려운 존재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을 잡히는 인간에게 경외감과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부활 일요일에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마태복음 28:6). 성경 기록에 따르면, □□□□□ □□□□□ □□□□ □□□□ □□□□□□□□ (누가복음 1:12)

실제로 다니엘의 반응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천사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복종과 존경의 자세를 취합니다.

가브리엘은 여기서 다니엘을 "인자 son of man" 라고 부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이 표현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대문자로 쓰일 때 the Son of Man 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자신을 자칭할 때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마태복음 12:32, 누가복음 12:8, 요한복음 1:51). 이는 인간의 궁극적 현현 the ultimate manifestation of man 으로서 그분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의도하신 모든 것의 최고의 모범이며, 진리와 은혜의 화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 구절과 에스겔서(에스겔 2:1)에서처럼 대문자로 쓰이지 않을 때는 단순히 "인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듣는 사람에게, 이 경우 다니엘에게 그의 인간적 약점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설명 없이는 꿈이나 환상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그 환상이 **마지막 때 the time of the end** 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마지막을 의미할까요? 가브리엘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아(기원전 175-164 년)가 유대인에게 가한 폭정의 마지막 때를 의미했을까요?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 antichrist 였으며, 그의 행동은 이 두 번째 환상에서 읽은 것과 유사했습니다.

아니면 가브리엘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돌아오시기 직전의 마지막 때를 의미했을까요? 가장 만족스러운 대답은 이 "마지막 때"(이중 성취 a dual fulfilment) 둘다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에 의해서 성취되었지만, 미래의 적그리스도 the Antichrist 에 의해서도 성취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관점에서는 이 두 사건 모두 머너먼 미래에 있었습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18 Now, as he was speaking with me, I was in a deep sleep with my face to the ground; but he touched me, and stood me upright. 19 And he said, "Look, I am making known to you what shall happen in the latter time of the indignation; for at the appointed time the end shall be.

After Gabriel's introductory remark, Daniel falls into a trance (deep sleep). This is a coma-like state that accompanies the heaven-sent visionary experience. It is the same word (*radam*) that's used for when Jonah fell asleep during the terrible sea storm (Jonah 1:5). Daniel was roused from this state of deep slumber by Gabriel's touch and made to stand up.

Gabriel had an important message to give him. He will tell him what will happen in the **latter time of the indignation**. This is a prophetic term that is often associated with the unfolding of God's divine plan and judgment in the end times. As we just noted the first fulfilment of these things will come through Antiochus Epiphanies. Let us continue.

18 그가 말하는 동안 의식을 잃은 채 땅에 엎드려 있었으나 그가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우고 19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진노하실 때 일어날 일을 너에게 알려 주겠다. 이 환상은 역사의 마지막 관한 것이다

가브리엘이 발언을 시작한 후, 다니엘은 트랜스(*trans*(깊은 잠)에 빠집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환상을 경험할 때 동반되는 혼수(*coma-like*)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끔찍한 바다 폭풍이 몰아치는 도중에 잠들었을 때 사용된 단어 (*리담 radam*)와 같습니다(요나 1:5).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도록 합니다.

가브리엘은 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진노하실 때** the latter time of the indignation 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할 것입니다. 이 표현은 종종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과 심판이 펼쳐질 것에 대한 예언적 용어입니다. 잠전에 언급했듯이 이러한 것들의 첫 번째 성취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니를 통해 올 것입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20 The ram which you saw, having the two horns—they are the kings of Media and Persia.

Gabriel begins his explanation of the vision by clearly identifying the identity of the ram.

The ram symbolises the empire of the Medes and Persians. As you will recall they conquered the empire of the Babylonians in the year 539 BC. The ram has two horns. One represents the Medes and the other the Persians. As I have noted on a number of occasions this union of two people groups whilst successful was always unbalanced. This is reflected in the fact that one of the horns was bigger than the other. This bigger horn represents the Persians.

Although the two empires began as equal partners over time the Persians became dominant. In fact in time the name Media became almost obsolete, and the kingdom came to be known as simply Persia.

The ram moved in three directions west, north and south. Historically, the Persian Empire pushed its borders primarily in these three directions. It went west (into Lydia, Ionia, Thrace, and Macedonia), northward (towards the Caspian Mountains, the Oxus Valley, and Scythia), and southward (toward Babylonia, Palestine, and Egypt). They were, as you can see on the map very successful. They carved out a huge empire spanning 5.5 million square kilometres that lasted for a little over 200 years. Their Empire came to an end in 331 BC. Who was it that brought their ascendancy to an end? We shall see in the next verse.

20 “네가본 그 숫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고

가브리엘은 숫양의 장체를 밝히면서 환상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숫양은 메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기원전 539 년에 바빌론제국을 정복했습니다. 숫양은 뿔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메대를 다른 하나는 페르시아를 나타냅니다. 이 두 민족의 연합은 성공적이기는 했지만 항상 불균등했습니다. 이는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다는 □□□□ □□□□. 더 큰 뿔이 페르시아를 나타냅니다.

두 나라는 처음에는 동등한 파트너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페르시아가 더 우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메대라는 이름은 빠지고, 이 제국은 단순히 페르시아로 알려집니다.

숫양은 서쪽, 북쪽, □□□□□□□□□□□□.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은 주로 이 세 방향으로 국경을 확장했습니다. 서쪽 리디아, 이오니아, 트라키아, 마케도니아, 북쪽 카스피 산맥, 옥수스 계곡, 스기타이, □□(비발로니아, 팔레스타인, 이집트)으로 뻗어 나갔습니다.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들은 550 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고, 그 제국은 200 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그 제국은 기원전 331 년에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 대단한 제국을 끝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다음 구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1 And the male goat is the kingdom of Greece. The large horn that is between its eyes is the first king.

The male goat that appeared in the west is symbolic of the Greek Empire. Greece is of course west of Persia hence the direction from which the goat was coming. The goat was a common representation of the Greek Empire. Two hundred years before the time of Daniel, they were called, the “goat people.”

As we previously noted the Greek Empire moved and captured territory with lightning speed. They subdued kingdom after kingdom, from Greece all the way to India between the years 334 and 323 BC.

This was all the more remarkable when we consider the kinds of opponents they faced. The Persians for example possessed huge armies and sophisticated military equipment such as war elephants. But they were undone by the military genius of Alexander the Great. He is symbolised in the vision by the large single horn emerging from between the goat's eyes.

However the great advances of the Greek empire were curtailed by two major events.

Alexander's great success went to his head. He became extremely arrogant and began to think of himself as being divine. He even made his soldiers bow down before him. His 120,000 troops became deeply unhappy both with his arrogant attitude, and what they were being commanded to do. They were being asked to advance further and further into India and were simply exhausted. This resentment bubbled away under the surface until it eventually resulted in a mutiny on the banks of the River Hyphasis in India. The troops refused to obey orders and advance. The expansion of the Greek Empire was effectively over.

The second major event was the untimely death of Alexander most likely of fever at the young age of 33. With its single charismatic leader gone The Greek Empire was divided into four parts. This is outlined in our next verse.

21 뿔이 많은 그 숫염소는 그리스를 가리키며 그 숫염소의 두 눈 □□□ □□ 뿔은 그 □□의 첫 번째 왕이다

서쪽에 나타난 숫염소는 그리스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는 페르시아의 서쪽에 있으므로 염소가 서쪽에서 옵니다. 염소는 그리스 제국을 일반적으로 상징했습니다. 다니엘 시대보다 200 년 전에 그들은 "염소 민족 goat people" 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스 제국은 반개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334 년에서 323 년 사이에 그리스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왕국들을 차례로 정복했습니다.

그들이 대적한 적들을 생각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 페르시아는 거대한 군대와 전쟁 코끼리 같은 정교한 군장비를 보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군사적 천재였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환상에서 염소의 눈 사이

에서 나오는 큰 뿔이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 제국의 거대한 확장은 두 가지 주요 사건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위대한 성공으로 인해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극도로 오만해졌고 자신을 신 god 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병사들이 그에게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십이만 명의 군대는 그의 오만한 태도와 명령에 대해 깊은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인도 내부로 더 진군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너무도 지쳐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분노는 □□□□ □□□□□ □□□ □□□□ □□□□ □□□□□□□□. 군대는 진군하라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리스 제국의 확장은 사실상 여기서 끝났습니다.

두 번째 주요 사건은 33 세의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가 아마도 열병으로 일찍 죽은 것이었습니다. 유일한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사라지면서 그리스 제국은 네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구절에서 설명합니다.

22 As for the broken horn and the four that stood up in its place, four kingdoms shall arise out of that nation, but not with its power.

Following Alexander's early death (the broken horn), four kings, formerly his top generals emerged to lead the remnants of the Greek Empire. The conquered regions were split into four parts. The new kings were Cassander, Lysimachus, Seleucus, and Ptolemy. Each king each took charge of a piece of the formerly united empire and ruled as they saw fit. There was considerable disagreement and much infighting between them. As we know a fractured nation is never as strong as one that is united. This reality is reflected here by the statement that the four horns were not as powerful as the single horn. Let us continue.

22 그 뿔이 꺾이고 대신 나온 네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네 나라를 가리킨다. 그 어느 것도 처음 나라보다 강하지 못할 것이다

알렉산더가 일찍 죽은(부러진 뿔) 이후, 그의 장군이었던 네 명의 왕이 등장하여 그리스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정복한 지역을 네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 □□□, 리시마쿠스, 셀레우쿠스, 프톨레마이오스였습니다. 각 왕은 이전의 하나였던 제국을 쪼개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통치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상당한 의견 불일치와 많은 내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분열된 국가는 결코 통일된 국가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네 개의 뿔이 하나의 뿔보다 강하지 못하다는 언급이 이것을 반영합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23 “And in the latter time of their kingdom, When the transgressors have reached their fullness, A king shall arise, Having fierce features, Who understands sinister schemes.

24 His power shall be mighty, but not by his own power; He shall destroy fearfully, And shall prosper and thrive; He shall destroy the mighty, and also the holy people.

We are to imagine that some time has now passed. There is a gap of some years between the events of verse 22 and verse 23. The division of the Greek empire took some time. We know from history that Alexander the Great died in 323 BC. So we are jumping ahead here to the year 175 BC. That year saw the rise a king in the Seleucid Dynasty. The Seleucid dynasty ruled over much of what had been Persia, Syria and Israel. This new king's name was Antiochus Epiphanes.

His official name and title was actually Antiochus the 4th (c 215 -164 BC). You might be interested to learn that his birth name was Mithridates, but it was changed either after the death of his elder brother Antiochus or when he became the king. The title *Epiphanes* was one he took for himself. It certainly reflects his extreme pride and arrogance. It means, “illustrious one,” “brilliant or shining one,” or “god manifest.” So he desired that people address him as “Antiochus the brilliant or shining one.” It is also claimed that he said of himself that he had the face of the god Zeus. Which is rather like me saying I have the face of George Clooney (wishful thinking).

However his at times bizarre and blasphemous behaviour earned him an altogether different nickname from the Jews. A nickname I'm sure he wouldn't have liked. He became known as

Epimanes, meaning "crazy" or "mad one." It's one that far better suits him!

For all his faults, and there were many, he was bold, and fiercely intelligent. He was renowned for being cunning, cruel and brutal. As it says here he was a person who liked to scheme or plan and turn his wicked thoughts into reality. He was said to be deceptive and smooth-tongued. A man skilled in intrigue.

He arose to power so we are told at a time when other wicked people have prevailed. This possibly speaks to the fact that God's patience has been fully tested. His people had turned from Him so they now needed the rod of discipline. This correction would come through Antiochus.

God allowed Antiochus to be incredibly powerful and destructive. He will be permitted to prosper and thrive. In some translations it says that he will succeed in whatever he does. As with The Antichrist who arises during the tribulation period he will be driven and empowered by Satan. We know this because his hatred against God and His people will be evident. He will not simply be content to rule and reign he will seek to trample upon God and God's people.

A study of history reveals the truth of this evil man's actions.

We know him to be an infamous persecutor of the Jewish people. He had no respect for the Jewish culture or way of life. He was a Greek and he wanted the Jews to submit to Greek culture and customs. In order to "persuade" them to adopt Hellenism he was more than willing to use murder and violence. By some estimates he was responsible for the murder of more than 100,000 Jews. Among these who suffered at his hands were members of every strata of society. From the elite classes at the top to the Levite priests (the holy ones) who controlled the temple. One of his first acts was to drive out the high priest Onias, an ardent Jew, and replace him with Jason, a patron of the Greeks.

As part of his desire to decimate Jewish culture he turned against their capital city, the temple and their religion. He issued an edict that there would be one religion in his realm and it wouldn't be the Jewish religion. He prohibited the Jews from honouring the Sabbath, practising circumcision, and obeying the Levitical dietary laws. This all came to a head in December 168 BC. He ordered his generals to seize Jerusalem on a Sabbath. There in the temple he set up an idol of Zeus and desecrated the altar by making an offering of a pig and then sprinkling the pig's blood in the sanctuary. Sacrifice following this abomination stopped because the temple was now unclean.

Let us read on and learn more about this wicked king.

23 그네 나라가 멸망할 때쯤 되어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것이며 그때 아주 압축하고 책략에 능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24 그는 대단히 강력할 것이지만 그 권세는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가 장차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며 하는 일마다 성공하여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다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2 절과 23 절의 사건 사이에 몇 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스 제국의 분열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23 년에 죽었습니다. 이 구절은 기원전 175 년으로 건너뛴다. 그 해에 셀레우코스 왕조 Seleucid Dynasty 에 한 왕이 등장했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페르시아, 시리아, 이스라엘의 대부분을 통치했습니다. 이 새로운 왕의 이름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니 Antiochus Epiphanies 였습니다.

그의 공식 이름과 직함은 안티오쿠스 4 세 Antiochus the 4th (기원전 215-164 년경) 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미트리다테스 Mithridate 였지만 그의 형 안티오쿠스가 죽은 이후 아니면 그가 왕이 된 후에 바뀌었습니다. *에피파니* Epiphanies 라는 직함은 그가 스스로 지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극도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반영합니다. 그것은 "빛나는 자 illustrious one ", "빛나는 자 brilliant or shining one " 또는 "현신 god manifest" 을 의미합니다. 즉,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뛰어난 또는 빛나는 안티오쿠스 Antiochus the brilliant or shining one " 라고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제우스 신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이는 제가 조지 클루니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희망적인 생각).

그러나 그의 기교하고 신성 모독적인 행동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에게 전혀 다른 별명을 주었습니다. 그가 좋아하지 않았을 별명입니다. 그는 "미친crazy" 또는 "미치광이mad one"를 의미하는 *에피마네스Epimanes* 로 알려졌습니다. 그에게 훨씬 더 어울리는 별명입니다.

그의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담하고 매우 자적이었습니다. 그는 교활하고 잔인하며 난폭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듯이 그는 책략을 꾸미고 자신의 사악한 생각을 실행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기만적이고 언변이 유창했으며, 음모에 능숙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악한 자들이 반영했던 시기에 권력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인내심이 막바지에 달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그에게서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제 장계의 막대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장계는 안티오쿠스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티오쿠스가 엄청나게 강력하고 파괴적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반영하도록 허용하십니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그가 무엇을 하든 성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환난 기간 동안 일어날 적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그도 사탄이 부추기고 힘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그의 극심한 증오심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통치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으려고 할 것입니다.

역사를 연구하면 이 사악한 자의 행동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한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는 유대인 문화나 삶의 방식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인이었고 유대인들이 그리스 문화와 관습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할례니즘을 받아들일도록 설득하기 위해 살인과 폭력을 가까이 사용했습니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그는 10 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살해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그의 손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유가 높은 엘리트 계층부터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 제사장(성스러운 사람들)까지 망리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행동 중 하나는 열렬한 유대인인 대제사장 오니아스를 몰아내고 그리스를 후원하는 제아스를 대신 임명했습니다.

유대 문화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의 욕망의 일환으로 유대인들의 수도, 성전, 그리고 종교에 대적하였습니다. 자신의 영토에 하나의 종교만 허용할 것이고 그것은 유대교가 아닐 것이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존중하고, 할례를 행하고, 레위인의 식이법을 따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원전 168 년 12 월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자기 장군들에게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성전에 제우스의 우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친 다음 성소에 돼지의 피를 뿌려 제단을 더럽혔습니다. 이 혐오스러운 일로 인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악한 왕에 대해 더 자세히 읽어 보겠습니다.

25 “Through his cunning He shall cause deceit to prosper under his rule; And he shall exalt himself in his heart. He shall destroy many in their prosperity. He shall even rise against the Prince of princes; But he shall be broken without human means.

As I noted before Antiochus was a crafty and clever man. His plans and schemes were often well thought out and frequently successful. Due to his cunning and guile he succeeded and prospered. This success clearly went to his head. He became intensely prideful. He began to exalt or “lift up” himself. This is evidenced in the coins he minted.

On the screen you can see one of Antiochus' coins. On the reverse side of the coin you can see the inscription in Greek which read “Theos Epiphanies.” This means “god manifest.” The message is clear for all to see. Antiochus is saying, “here I am god in the flesh.”

We also learn here that he shall destroy many in “their prosperity.” This speaks of how Antiochus will launch sudden or unexpected attacks against people. He will launch his wicked schemes when

people are relaxed or at ease. They will be caught out and unable to defend themselves. Not content with imposing his will upon his subjects he will also take on the “**Prince of princes.**” This title refers to God most likely in the person of Jesus Christ. As the Apostle Paul tells us in his first letter to Timothy, Jesus is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1 Tim 6:15)

So Antiochus will attempt to stand against God. He will try to suppress God and impose his own will. How do you suppose he will fare? Do you think he will enjoy much success? You won't perhaps be surprised to learn that he doesn't do well. We are told that he is “**broken without human means.**” This is a reference to the defeat and death of Antiochus. The idea being conveyed to us is that he will not be beaten and broken at the hands of men. His demise will come about through the agency of God.

There is considerable debate surrounding how exactly Antiochus died. It's something of a mystery. According to the author of the first book of Maccabees he died of grief and remorse following a military defeat (1 Macc. 6:8-16). Some scholars say he died of an intestinal disease. Others claim he suffered and died from a mental illness of some kind. Other more outlandish theories say he was crushed to death by an elephant.

The take-away whatever his actual cause of death was that it did not come at the hands of a man. It was God who brought his reign of tyranny to an end.

Before moving on I want to make one observation. Due to the numerous similarities between this antichrist (Antiochus Ephihanes) and the end time Antichrist many conservative scholars believe that what we are reading here is a dual prophecy prediction. Namely, that it refers both to Antiochus and also to the end time Antichrist.

Let us turn next to the timing for when this will occur.

25 그는 기만술에 능하여 속이는 데 성공할 것이며 자신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 하고 있을 때 그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는 사람의 손 하나 닿지 않아도 멸망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안티오쿠스는 교활하고 영리했습니다. 그의 계획과 계략은 잘 꾸며졌고 종종 성공적이었습니다. 교활함과 간계 덕분에 그는 성공하고 번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기고만강해졌습니다. 극도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주조한 동전에서 입증됩니다.

화면에서 안티오쿠스의 동전 중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동전의 뒷면에는 그리스어로 "Theos Epiphanies"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의 뜻은 "현신 god manifest"입니다.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합니다. 안티오쿠스는 "여기 □□□□ □□ □□□ here I am god in the flesh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 이 안전하다고 □□□□ 있을 때"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이것은 안티오쿠스가 사람들이 예 □□□□ □□□□ □□□□ □□□□ □□□□ □□□□. 그는 사람들이 평안할 때 그의 사악한 계략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붙잡히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만왕의 왕 Prince of princes**"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 칭호는 하나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 □□□□□□□□ □□□□,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딤후 6:15).

그래서 안티오쿠스는 하나님께 맞서려고 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억누르고 자신의 뜻을 강요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성공할까요? 물론 그의 뜻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가 "**□□□ 손 하나 닿지 않아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안티오쿠스의 패배와 죽음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전달되는 생각은 그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파멸은 하나님의 대항자를 통해 올 것입니다.

안티오쿠스가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미스터리입니다. 마카비서 1 권의 저자에 따르면 그는 군사적 패배 후 슬픔과 후회로 죽었다고 합니다(마카비서 1 권 6:8-16). 일부 학자들은 그가 장 질환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그가 정신 질환을 앓다가 죽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더 기이한 이론은 그가 코끼리에게 밟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실제 사망 원인이 무엇이든, 그것은 사람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폭정을 끝낸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종말의 적그리스도는 수많은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보수적인 학자들은 우리가 여기서 읽고 있는 것이 이중 예언 a dual prophecy prediction 이라고 믿습니다. 즉, 그것은 안티오쿠스와 종말의 적그리스도 둘다를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한 시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6 “And the vision of the evenings and mornings Which was told is true; Therefore seal up the vision, For it refers to many days in the future.”

Here we see the angel Gabriel give Daniel's vision another title. He calls it, "the vision of the evenings and mornings." The phrase describes the particular period over which this prophecy would find fulfilment. As you may remember last time Daniel overheard two angelic beings talking about how long this time of trouble would last (Dan 8:14). One of the angels told him that it would last for 2,300 days before the sanctuary would be cleansed. This time period is literally rendered as “two thousand three hundred mornings and evenings.” The Book of Genesis uses the phrase "evening and morning" to refer to a day (Gen 1:5). So is that how we are to understand this time frame?

What exactly is in view here has caused considerable debate. The debate rages over whether it means complete days (2,300 days), or whether mornings and evenings means two days and we are therefore to halve this number (1,150 days).

Either interpretation is possible, but it is more likely that it means 2,300 days. We know the date when the temple was cleansed as December 25, 165 BC. If we count back 2,300 days from this date we come to the year when Antiochus Epiphanies began his persecution in earnest (171 BC).

However, if we take it to mean 1,150 days it could refer to the time the temple was actually desecrated and no sacrifices could be made to God. Philip Newell makes the case in the following way.

The sacrifices in the temple were offered twice a day. One in the morning and one in the evening. So, 2,300 times of sacrifice equates to 1,150 days. This means a little over 3 years. This matches with the time of the Maccabean tribulation (168-165 BC). At the end of this time the sanctuary was cleansed by Judas Maccabeus and the sacrificial system began again.

(Newell, Philip R. "Daniel: The Man Greatly Beloved and His Prophecies" Chicago, Moody Press, 1951)

The biblical text means that it is difficult to be absolutely sure as to what exactly is meant here. Whatever the case this was a far distant event from the time of Daniel. It would be almost 400 years before Antiochus Epiphanies appeared on the stage of world history. It would be even longer still until the emergence of the final Antichrist. Therefore Daniel was to seal up the vision. This speaks to the necessity of accurately recording the information and ensuring that it was safely preserved. Let us finish up our study with verse 27.

26 이미 말한 바 주아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궤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기서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환상에 또 다른 제목을 붙여줍니다. 그것을 "주아에 대한 환상 the vision of the evenings and mornings "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절은 이 예언이 성취될 특정 기간을 설명합니다. 지난번에 다니엘은 두 천사가 이 환난 기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단 8:14). 천사 중 한 명이 성전이 정화되기 전까지 2,300 일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간은 문자 그대로 "아침 삼백 아침과 저녁"으로 번역됩니다. 창세기는 "저녁과 아침"이라는 구절을 하루를 지칭하는 데 사용합니다(창 1:5).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간을 그렇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의 의미에 대한 상당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날들(2,300 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아침과 저녁이

이들을 의미하므로 이 숫자(1,150 일)를 반으로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어느 해석이든 가능하지만 2,300 일을 의미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정화된 날짜가 기원전 165년 12월 25일 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날짜로부터 2,300 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본격적으로 박해를 시작한 해 기원전 171년 가 됩니다.

그러나 1,150 일을 의미한다고 가정하면 성전이 실제로 더럽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시기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필립 뉴웰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성전에서 제사는 하루에 두 번 드렸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따라서 2,300 번의 제사는 1,150 일에 해당한다. 이는 3년이 조금 넘는다. 이는 마카비 환난(기원전 168-165년)의 시기와 일치한다. 이 기간이 끝나자 성소는 유다 마카비에 의해 정화되었고 제사 제도가 다시 시작되었다. (뉴웰, 필립 R. "다니엘 □□□□□□□□□□ □□" 시카고, 무디 프레스, 1951)

여기 성경 본문에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절대적으로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것은 다니엘 시대로부터 아주 먼 미래 사건이었습니다. 거의 400년 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가 세계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까지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그 환상을 봉인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안전하게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27 절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7 And I, Daniel, fainted and was sick for days; afterward I arose and went about the king's business. I was astonished by the vision, but no one understood it.

The revelation of the dream coupled with the angelic encounter had a profound effect upon Daniel. He fainted from the shock and felt unwell for days afterward. He was overwhelmed by the experience and suffered mental anguish as well as feeling drained of energy. We can probably understand to some degree this reaction.

The vision's implications were both shocking and disturbing.

At some unknown future time terrible things would come upon God's people, the temple and the whole Jewish way of life. Daniel knew some of what would happen but he was far from knowing the whole, or complete picture. He would just have to live with a whole number of unanswered questions. It's not surprising then that he was troubled.

However we learn something interesting and important from what Daniel did next. He didn't wallow in his misery or sadness, nor did he live in a state of despair. He didn't withdraw and mope about in his room. Instead, he got up and continued to work. In Daniel's case this was working for the king.

The final thing we read here is that no one understood this vision. We might interpret this in either of two ways. Firstly, we might read it to mean that Daniel told others, but the vision perplexed them too. Or alternately, that since the vision was sealed and Daniel did not divulge it to anyone else no one would have been able to understand it.

And so we bring the account of Daniel's second vision to a close. The vision we have considered in chapter 8 concludes the visions which lean heavily on symbolism. Subsequent visions will have angelic figures and interpretations, but they will not depend on symbols such as metals (chap. 2) or animals (chaps. 7-8).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begin chapter number 9. We will look at Daniel's prayer for the people.

27 그러고서 □ 다니엘은 실신 □□□ 빠져 여러 □□ 일다가 그 후에 일어나 왕이 맡긴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 는 그 환상을 보고 무척 놀랐으며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환상의 계사와 천사와의 만남은 다니엘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충격으로 실신 상태에 빠졌고 여러 날 동안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경험에 압도당했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에너지가 고갈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이러한 반응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환상의 의미는 충격적이고 불인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 성전 그리고 유대인의 삶의 방식 전체에 끔찍한 일이 닥칠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일부는 알았지만 전체 또는 완전한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답이 없는 수많은 질문과 함께 살아야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괴로움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이 다음에 한 일에서 흥미롭고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그는 슬픔과 절망에 빠진 상태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방에서 침울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일어나서 그의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 왕을 위해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읽은 마지막 내용은 아무도 이 환상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그들도 그 환상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그 환상이 봉인되었고 다니엘이 다른 사람에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을 마칩니다. 8장에서 살펴본 환상은 상징주의에 크게 의존하는 환상의 마무리입니다. 이후의 환상에는 천사의 모습과 해석이 있지만 금속(2장)이나 동물(7-8장)과 같은 상징에 의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 번에 9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백성들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Lessons to learn

I have two lessons drawn from today's passage.

오늘의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1 Getting back up after being knocked down

Sadly it is part of life that we experience setbacks from time to time. Things do not always go to plan. Perhaps we were promised a promotion at work which falls through. Maybe sickness or injury stopped us achieving some goal. Perhaps the plans you had for the future don't materialise. You are left feeling despondent.

I remember at middle school being selected for the swimming team. I was due to swim the backstroke leg of the relay race. The team was good, and we were confident of performing well. Unfortunately on the day of the race I woke up feeling sick and weak. Very reluctantly I had to drop out of the team and couldn't swim. The team went on to win the race without me. I'm sure you can imagine how disappointed I felt. At school on Monday morning they were all heroes and I was a zero! I'm sure have similar stories of one kind or another.

How do we respond after such events? The way we react says a great deal about our characters. Do we allow ourselves to wallow in disappointment and sadness, or do we pick ourselves up and carry on? Often there is a great deal to learn from these setbacks. We grow from them and come back stronger.

Daniel as we saw today was deeply troubled by the vision he'd received. How did he respond? Well, we are told that after the sickness passed he got up and went back to work. Perhaps the temptation was to shut himself away in his room and become depressed about the future. This was not what he did. Daniel pushed this feeling to one side as he continued to do what God had called him to do. This meant serving as a living witness to the one true God and demonstrating His love to others. Daniel was able to do this because he knew ultimately who was in charge. God had allowed him a glimpse of some of the terrible events that were to unfold. Daniel was shocked, but he also knew

The same principal not only applies to people but also to ideas and ideologies. Today we are often bombarded by falsehood and lies dressed up as the truth. We are encouraged to reject the truth of God's Word and go with what "science" tells us. The bible and what it promotes is old-fashioned and out of date. We know so much better than God.

We now "know" for example that gender is fluid, we evolved from apes, aliens got life going on this planet, the earth is at least 4 billion years old, religion is just a crutch for the weak-minded, the stories in the bible are just made up myths and fairy-tales, there are many ways to God, Jesus didn't really exist, and even if he did he never claimed to be God. Oh, how wise, so many are today.

Those who hold such views and opinions will one day get a shock. They will find themselves on the wrong side. When they stand before God they will have to explain why they believed, and promoted such lies. But at that point it will be too late.

So I encourage you all to stand firm and not soften or give up on the truth. It isn't being kind or inclusive to not challenge people for holding ridiculous opinions. If someone you knew said, "I think that if I exit this 15th floor window at just the right angle I could glide like a bird to the ground." What would you say? "Okay, go ahead, good luck. See you at the bottom." Of course not you'd talk to them about why what they just said made no sense. That should be the same approach we take to those who promote nonsensical ideas. We should gently and lovingly try to persuade them that they are wrong. That God is the author of truth. That they are being deceived by the lies of Satan and those who reject God and what He represents.

The truth is really very simple. Those that put their faith and trust in the person and work of the Lord Jesus Christ will be saved. They are right. Anyone looking for salvation anywhere else will not be saved. They are wrong. Let's make sure we are on the right side.

2 올바른 편에 서기

우리는 오늘 안티코쿠스 에피파니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좋은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교만하고 거만했으며, 하나님에 대적하여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신의 사악한 뜻대로 행하고 잠시 성공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성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이 폭군이 변영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폭군의 시간이 끝났다고 결정하셨을 때 그를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악인이 얼마 동안 변영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심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좋은 예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사람뿐만 아니라 사상과 이념에도 적용됩니다. 오늘날 진실로 가장한 허위와 거짓말이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과학"을 따르라고 강요당합니다. 성경과 그것이 권장하는 것은 구식이고 시대에 뒤떨어졌어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잘 알아.

예를 들어, □□□□ 다음과 같은 것을 "안다know"고 합니다; □□□ 성별이 유동적이어서 바꿀 수 있고,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했고, 외계인이 이 지구상에서 생명체를 유지했고, 지구의 나이는 최소 40 억 년이고, 종교는 악한 사람을 위한 버팀목일 뿐이고, 성경의 이야기는 꾸며낸 신호와 동화일 뿐이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고, 예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했다리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현명한지요.

그런 견해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언젠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편에서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왜 그런 거짓말을 믿고 퍼뜨렸는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확고한 신념으로 진실을 옹호시키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터무니없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전하지 않는 것은 친절하거나 포용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ㄷㄷ 15 층 창문에서 적절한 각도로 나간다면 새처럼 바닥까지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행운을 빌어요. 땅에서 만나요." 물론 아니겠죠. 여러분은 그ㄷㄷㄷㄷ 방금 한 말이 왜 말도 안 되는지 알려줄 겁니다. 거짓된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친절하고 따뜻하게 그들이 틀렸고, 하나님이 진리의 저자이며, 그들이 사탄의 거짓말과 하나님과 그분이 대표하는 것을 대적하는 자들의 거짓말에 속고 있다고 그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진실은 정말 단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믿음과 신뢰를 두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옳습니다.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편에 있는지 확인합시다.